



## KOREA'S EMBRACE AND APPRECIATION

## OF UZBEK CULTURE AND HISTORY THROUGH ABDULLA QODIRIY'S LITERATURE

**Tschungsun Kim**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ollege of Humanities and International Studies, Keimyung University

Korea

E-mail: [tsk@kmu.ac.kr](mailto:tsk@kmu.ac.kr)

## ABOUT ARTICLE

**Key words:** Uzbek literature, Abdulla Qodiriy, the Days Gone By, Korean literature, literary translation, jadid movement, Yi Kwang-su, Mujong, Cross-cultural studies

Modern literary development

**Received:** 26.04.25

**Accepted:** 28.04.25

**Published:** 01.05.25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the cultural and literary exchange between Uzbekistan and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after Uzbekistan gained independence.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translation of one of the most prominent Uzbek classical novels — O'tgan kunlar (The Days Gone By) by Abdulla Qodiriy — into the Korean language. The author discusses historical and spiritual parallels between the two nations as reflected in their modern literary work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ranslation process, source comparison, and field research trips, the article highlights the methods employed to accurately convey the socio-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 of the novel. The study also compares O'tgan kunlar with the Korean writer Yi Kwang-su's novel Mujong (The Heartless), pointing out common ideological and structural motifs. In addition, the article delves into the philosophical and historical layers of the novel's composition, linguistic developments, and the role of the Jadid movement in shaping the modern Uzbek literary language.

**ABDULLA QODIRIY ADABIYOTI ORQALI KOREYANING O'ZBEK MADANIYATI VA TARIXINI QABUL QILISHI VA TUSHUNISHI**

**Tschungsun Kim**

Koreys tili ta'limi, gumanitar va xalqaro tadqiqotlar fakulteti professori

Koreya Respublikasi Keimyung universiteti

Koreya

E-mail: [tsk@kmu.ac.kr](mailto:tsk@kmu.ac.kr)

## MAQOLA HAQIDA

**Kalit so‘zlar:** O‘zbek adabiyoti, Abdulla Qodiriy, o‘tgan kunlar, Koreya Respublikasi, tarjima nazariyasim jadidchilik harakatim, Li Kvangsue, modern adabiyot, O‘zbek-koreys adabiy aloqalari, kross-madaniy tahlil

**Annotatsiya.** Mazkur maqolada O‘zbekiston mustaqillikka erishganidan so‘ng Koreya Respublikasi bilan o‘rnatgan diplomatik va madaniy aloqalari, xususan, o‘zaro adabiy almashinuvlar tahlil qilinadi. Muallif O‘zbekiston mumtoz romanlaridan biri — Abdulla Qodiriyning "O‘tgan kunlar" asarini koreys tiliga tarjima qilish tajribasi orqali ikki xalq o‘rtasidagi tarixiy, madaniy va ma’naviy o‘xshashliklar, ayniqsa, modern adabiyotdagi ruhiy parallellar yoritiladi. Tarjima jarayonidagi metodik yondashuvlar, manbalararo solishtirishlar, hamda mahalliy kontekstni anglash uchun amalga oshirilgan safarlar haqida batafsil so‘z yuritiladi. Asarda "O‘tgan kunlar" romanining o‘zbek jamiyatining tarixiy, siyosiy va ijtimoiy muammolarini qanday aks ettirgani, shuningdek, koreys yozuvchisi Li Kvangsuga tegishli "Mujong" romanidagi o‘xshash motivlar bilan taqqoslanadi. Shuningdek, roman tuzilmasidagi "akjasozlik", tarixiy-falsafiy ma’nolar, tildagi taraqqiyot va "jadidchilik" harakati doirasidagi o‘zgarishlar haqida ham chuqur tahlil berilgan.

### 압둘라 카디리의 문학을 통한 우즈벡 문화와 역사의 한국적 수용과 이해

김 중 순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한국어교육과  
교수

[tsk@kmu.ac.kr](mailto:tsk@kmu.ac.kr)

### О СТАТЬЕ

**키워드:** 우즈베크 문학, 압둘라 코디리 (Abdulla Qodiriy), 번역 이론, 자디드 운동 (Jadidchilik harakati), 이광수 (Li Kvangsue), 현대 문학, 우즈베크-한국 문학 교류, 교차문화 분석 (Kross-madaniy tahlil)

**초록.** 본 논문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한 이후 대한민국과 수립한 외교 및 문화 교류, 특히 문학적 상호 교류를 분석한다. 저자는 우즈베키스탄 고전 소설 중 하나인 압둘라 코디리의 『지난 날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 양국 간의 역사적, 문화적, 정신적 유사성, 특히 현대 문학 속의 정신적 평행성을 조명한다. 번역 과정에서 사용된 방법론적 접근, 자료 간 비교 분석, 그리고 지역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현지 탐방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룬다. 작품에서는 『지난 날들』 소설이 우즈베크 사회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아울러 한국 작가 이광수의 『무정』 소설에 나타난 유사한

모티브들과의 비교도 제시된다. 또한 소설의 구성 속에 나타난 “낡은 가치관의 해체”, 역사·철학적 의미, 언어의 진화, 그리고 ‘자디드 운동’이라는 사조 속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도 포함되어 있다.

## 1. 서론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는 1991년 소련이 붕괴한 다음에야 세상에 얼굴을 드러냈다. 1876년 코칸드 칸국이 러시아에 병합된 후 거의 120년 만에 독립 국가가 된 것이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92년부터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통해 한국과는 오늘까지 33년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그 사이 양국 대통령의 상호방문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경제 교류와 기술협력도 급속 도로 증진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에 이어 한국을 두 번째 교역상대국으로 삼고 있으며, 한국어와 한국문화, 즉 K-Culture를 기반으로 한류 팬들의 충도 두껍게 형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학과 국제결혼, 그리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한국을 향한 젊은이들도 적지 않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모습은 겨우 이 정도다. 너무나 피상적이어서 오해의 여지가 적지 않다. 우즈베키스탄을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실체를 이해한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들에게 축적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정신적 경험세계를 공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학이야말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우즈벡 문학은 거의 없다. 더스턴(Doston) 가운데 《알파미시》 정도가 전부다. 한국 문학도 우즈베키스탄에 제대로 알려질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능력 있는 번역가도 필요하고 출판 시장도 확보가 된 후에야 고려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AI 시대를 살며 글로벌 문화의 대변혁이 예상되고 있는 마당에, 자칫 서구 중심의 세계화에 의해 소수의 문화적 아름다움이 잊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가 감지된다. 이러한 목마름 속에서 우즈베키스탄 문학의 외국어 번역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이 바로 압둘라 카디리의 《아팠던 시간들》이다.

아마도 가장 많이 외국어로 번역된 우즈베키스탄 작품일 것이다. 1958년 Proshyedshiye dni라는 제목의 러시아어 번역을 필두로 1968년 Die Liebenden von Taschkent라는 제목의 독일어 번역, 1977년 Ötken Künler라는 제목의 카자스탄어 번역, 1983 Keçmiş Günler라는 제목의 아제르바이잔어 번역, 2004년 Geçmiş Zaman Olur ki라는 제목의 터키어 번역, 2017년 18년 19년 연속으로 The Days Gone By, Days Gone By, Bygone Days 등의 제목을 단 영어 번역, 2020년 Al-Ayyam Al-Khawaliy라는 제목의 아랍어와 《往昔》이라는 제목의 중국어 번역이 그것이다. 이

들 번역 가운데 대부분은 우즈벡 원어가 아니라 러시아어와 영어를 저본으로 삼은 중역이다.

나의 한국어 번역은 영어본, 독일어본, 그리고 우즈벡어 원본을 동시에 저본으로 삼았다. 우선 세 편의 영어본과 독일어본을 모두 한국어로 번역한 다음 그것을 우즈벡 원문과 일일이 비교하고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검토했다. 그리고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며칠간 소설의 배경이 되는 페르가나, 즉 코칸드와 마길란을 직접 방문하여 주인공의 발자취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카디리의 후손이자 Qodiriy Museum의 관장이신 Hondamir Qodiriy를 만나 자문도 구했다. 언어의 뒤에 숨어 있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까지 읽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고, 이를 위해 나의 우즈베키스탄 제자 Askarkhujaeva Nazokatkhon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그 과정에서, 독자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불편함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번역판들의 약점이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은 여러 번역을 비교함으로써 적절한 단어와 가장 명료한 문장을 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어 번역이 이런 약점들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문학 작품 번역서와는 달리, 나는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단어에 대해서는 길고 자세한 각주를 삽입시키고 별도의 용어 풀이와 해설까지 첨부했다. 한글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 원칙’을 따르지 않고 우즈벡어의 발음을 그대로 따랐다. 예를 들면, Margilan은 마르길란 대신 마길란으로, Chirchik은 치르치크 대신 치르칙으로 표기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Toshkent는 ‘토쉬켄트’에 가깝지만, 라틴어로는 Tashkent 라 쓰고 우리말은 ‘타슈켄트’로 표기했다.

이 책의 원래 제목 O’tgan Kunlar의 문자적 의미는 “지난 날들” 혹은 “흘러간 날들”이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한국어로 “아팠던 시간들”이라고 번역했다. 이는 우즈벡어로 Azobli Kunlar, 영어로는 The Days of Suffering 쯤 될 것이지만, “아픔”이라는 단어가 강조된 이유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적, 시대적, 정서적 공감대를 이어주는 열쇠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볼론.** 이 소설의 이야기는 1848년 2월에 시작하여 1860년 가을에 막을 내린다. 12년에 걸쳐 전개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19세기 전반에 걸쳐 외적으로는 러시아의 위협과 내적으로는 민족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던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상황이 응축되어 있다. 소위 그레이트 게임으로 불리는 영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러시아 제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세력 확장을 도모하고 있을 때였다. 러시아에 의한 강제 병합은 이미 나

라와 개인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간 날들(O'tgan Kunlar)을 저자 압둘라 카디리(Abdulla Qodiriy)의 아버지에게서부터 전달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19세기 중반 조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과 전통적인 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이 충돌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세도 정치의 부패와 사회적 혼란이 심화되었고, 외부적으로는 서양 세력의 접근이 점차 본격화되면서 조선 사회는 출구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일본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36년이라는 치욕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근대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춘원 이광수(1892~1950)를 떠올리게 된다. 카디리가 우즈베키스탄의 현실에 절망하고 있었다면, 그는 조선의 현실에 절망하고 있었다.

소설 《아팠던 시간들》의 주인공 오타벡은 타슈켄트에서 마길란까지 말을 타고 열흘씩이나 걸리는 먼 길을 열 차례 넘게 왔다 갔다하며 이야기를 펼친다. 일종의 여로소설(旅路小說, Road Novel)의 형태로 성장소설(Bildungsroman)이나 탐색 서사(Quest Narrative)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이 만나게 되는 자연을 어두운 숲, 흐린 하늘, 진흙길로 묘사하며 혼란스럽고 우울한 심경을 반영하는가 하면, 메마른 들판, 차가운 바람, 무성한 나무로 자신의 외로운 심경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가 지나가는 황량한 시골길은 우즈벡 사회가 겪는 부조리와 시대적 혼란의 길이 되기도 한다. 마치 톨스토이의 《부활》에서 네흘류도프가 카츄샤를 따라가며 섬세하고 감성적인 풍경 묘사를 통해 자신의 죄책감과 내적 갈등을 표현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은 자연을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와 도덕적 책임을 고민하게 만드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톨스토이라는 거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근대문학의 지평을 열었던 카디리와 동시대 인물이기도 하다. 《무정》에서, 영채의 자살 시도 소식을 듣고 밤 기차에 몸을 싣고 달리는 주인공 이형식은 창밖을 스치는 어두운 풍경 속에서 자신의 불안하고 슬픈 심리를 이렇게 담았다. “하늘에는 캄캄한 구름이 움쪽도 아니하고 무겁게 덮여 있고 가는 안개비가 내리며 이따금 조곰 짚은 빗방울이 떨어진다.” 카디리와 이광수는 자연 묘사를 단순한 배경 장식이 아니라,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반영하고 도덕적 고민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아팠던 시간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은 ‘액자소설’ 기법이다. 물론 《알포미쉬》 같은 우즈벡 전통 서사시가 이야기꾼 박시(Bakshi)에 의해 전달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은 산문과 운문을 결합한 삽화적 구조다. 그러나 이 작품은 하나의 기본 이야기(바깥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안쪽 이야기)를 포함 시키고 있다. 소설의 화

자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라든지, 우연히 만난 친구 우스타 알림이 자신의 삶을 또 하나의 액자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주인공 오타벡은 사랑하는 여인 쿠무쉬를 만나 결혼하게 된다. 그러나 부조리한 전통과 남성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 허위의식으로 가득한 제도, 그리고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축복하지 않는다. 보수적 전통을 대표하는 어머니와, 일부 다처제의 희생물인 주인공의 두 번째 부인, 그리고 악마의 화신이 되어 나타난 연적이 꾸며내는 음모가 그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걸림돌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팽팽한 긴장 관계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정치적 위기 사태가 맞물리면서 이야기는 클라이막스에 도달한다. 작가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복잡한 정치적 상실과 함께 그 절망적인 상황을 기가 막히게 엮어내어 우리를 비극의 카타르시스로 안내한다. 그것은 시대의 비극이기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 인간의 운명이 다다를 수밖에 없는 비극이기도 하다.

오타벡과 쿠무쉬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가 일차 서사라면, 전통적 사회 질서의 붕괴와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차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 서사 구조는 역사적 사건과 개인의 비극적 운명을 교차시키며 우즈베키스탄의 다면적인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 작가는 조국의 운명에 대해 회한에 찬 통탄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투르키스탄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고립시켜 역사를 멈추게 했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마치 서구의 중세를 따라가기라도 하려는 듯, 어떻게 문명을 단절시켰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알-콰리즈미 같은 위대한 조상이 발명한 대수학 같은 과학 발전을 어떻게 외면하였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급변하는 바깥 세계를 외면하며 그저 본능적인 욕심에 매달려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허우적거렸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칸이 모스크와 이맘들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왕권을 정당화하고, 진보적인 학자들의 사상을 어떻게 탄압했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안’과 ‘밖’이라는 상징과 기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즈벡의 주거 양식은 안과 밖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 여성 공간인 ‘안채’(Ichqari)와 남성 공간인 ‘사랑채’(Tashqari)의 구분이 그러하다. 사랑과 가정의 문제가 안채에서 이루어진다면, 사회와 정치의 문제는 철저히 사랑채에서 이루어진다. 저자 압둘라 카디리가 쿠무쉬에 대해 보여주는 애정이 안쪽을 향한 것이라면, 조국에 대한 애정은 바깥을 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 장면에서 쿠무쉬는 병에 걸려 있었다. 묘하게도 그 당시 그의 조국도 병들어 있었다. 저자는 쿠무쉬가 지닌 내적 아름다움을 통해 조국의 외적 안정과 평화를 연상하고 있고, 그 연상은 애절하고 안타까움으로 작동하고 있다.

오늘날 우즈벡어의 전신은 다양한 투르크어 방언들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차가타이 (Chagatai)語라고 할 수 있다. 투르크어를 기반으로 했지만, 사실상 그 발전 과정에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의 큰 영향을 받은 언어이다. 그것은 아랍어나 페르시아어와 달리 기본적으로 구어체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문어(文語)로서의 정교함이 부족했다. 아랍어나 페르시아어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학문적 개념이나 문학적 어휘가 부족했고, 문법과 문체의 체계성도 부족했다. 그러나 15세기에 위대한 문학가 알리 셰르 나보이 (Alisher Navoi, 1441–1501)가 등장하면서 차가타이어는 커다란 변화를 겪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갖는다. 그는 차가타이어로 방대한 저술 활동을 펼쳤고, 차가타이어의 높은 문학적 우수성을 입증했다. 그는 한글을 창제하여 조선의 문예를 부흥시킨 세종대왕 (1397~1450)과 동시대 인물이라는 사실도 우리의 주의를 끈다.

한편, 현대 우즈벡어는 19세기 이후 소련 강점기 시대의 언어 표준화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으며 차가타이어와 차별화되었다. 차가타이어가 아랍 문자로 기록되었던 데 비해 현대 우즈벡어는 소련 시기에는 키릴 문자를 사용했고, 독립 이후에는 라틴 문자를 공식 표기로 채택했다. 이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러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중앙아시아, 특히 튜르크어를 사용하는 민족들 사이에서 나타난 ‘자디드 운동’ (Jadid Movement)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서구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교육, 문학 및 사회 관습을 현대화하고 개혁하려는 이슬람 근대 개혁 운동이다. ‘자디드 작가’들은, 전통적인 페르시아어 및 아랍어의 영향에서 벗어나 민중들을 계몽하고,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언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

**3. 결론.** 압둘라 카디리는 대표적인 자디드 작가로 현대 우즈벡 어문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차가타이어의 고루하고 수사적인 문체 대신, 보다 명료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언어를 추구했다. 그는 사실주의적 서술 방식, 인간 심리 분석, 사회 비판적 시각 등의 요소에서 톨스토이를 비롯한 러시아 문학 거장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역사적 사실과 개인적 서사를 조화롭게 엮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인물의 내면을 심도 있게 탐구하여 우즈벡 사회의 변화와 인간 본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톨스토이가 러시아 귀족과 농노제의 모순을 비판했던 것처럼, 카디리도 우즈벡의 전통적 사회 구조, 봉건적 가치관, 부패한 지배층을 비판하고 있다. 전통과 근대화의 충돌 속에서 고민하는 인물들을 그려내며, 그들을 단순히 영웅이나 악당이 아니라 도덕적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는 인간적인 캐릭터로 그려 냈다.

카디리가 이 소설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근대를 열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의 근대는 우즈베키스탄만의 시대가 아니라 당대의 인류가 함께 겪었고, 함께 개척해 낸 시대이다. 그런 뜻에서 그의 작품에는 이 시대에 지구촌이 지향하는 공존의 가치와 보편성의 가치 숨어 있다. 그러므로 카디리는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정신문화의 교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 [참고문헌]

1. Qodiriy, A. 『*O'tgan kunlar*』, Tashkent: G‘afur G‘ulom Publishing House of Literature and Art.
2. Qodiriy, A. (2017, 2018, 2019). 『*The Days Gone By*』, Various English translations
3. Kwon, N. H. (2009). 『*Korean Literature and Its Global Contexts*』, Seoul: Literature Press.
4. Yi, Kwang-su. Mujong (The Heartless) (2005). 『*Translated by Ann Sung-Hi Lee*』, Seoul: EastBridge.
5. Navoiy, A. 『*Khamsa*』, Tashkent: Fan Publishing House.
6. Karimov, I. (1997). 『*Uzbekistan: A Country with a Great Future*』, Tashkent: Uzbekistan.
7. Khujanazarov, B. (2015). 『*Fundamentals of Translation Studies*』, Tashkent: O‘qituvchi.
8. Saidov, A. (2010). 『*The Spiritual Heritage of the Uzbek People*』, Tashkent: Ma’naviyat.
9. Rustamov, Sh. (2008). 『*Historical Novels in Uzbek Literature*』, Samarkand: Zarafshon.
10. Mirziyoyev, Sh. M. (2017). 『*High Spirituality is an Invincible Force*』, Tashkent: Ma’naviyat.